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9장 18절~21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21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98장(새찬송가 90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기사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날들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예수께서 알지 못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질문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즉시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평판이나 여론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자신의 인지도나 자기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의도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어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시아흐’를 우리말로로는 ‘메시아’ 혹은 ‘메시아’라고 발음하고 표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현대 그리스어로는 ‘호리스토스’라고 읽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이를 음역하여 ‘크리스투스’ 혹은 ‘크리스테’ ‘크리스토’ 등 여러 가지 발음을 합

니다. 영어에서는 라틴어 표현 중에 어근만 따와서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기독교(基督)이라고 음역하여 ‘지이 푸우’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는 이 한자를 ‘기독교’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이라는 발음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발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기독교, 기독교인이라고 발음해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이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하며 무슨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나 심판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유일하신 구세주를 부르는 호칭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명칭에 대한 발음이 완벽하여도 그가 부르는 이름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귀한 임무를 책임지도록 선택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儀式)이었습니다. 이는 선택된 자가 그에게 맡겨진 직분에 적합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그 임무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모두 완전하게 행하는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장차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 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아직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속적 정치적 성격을 가진 메시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인식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직은 말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신 질문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가부간 답하며 살아갑니다. 침묵조차도 일종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작든 크든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삶에까지 미치는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성령강림 이후부터였습니다.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십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

다.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8)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되던 날 그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방지역 안디옥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드디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한 정도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법 많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각양각색의 인식과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호평에 속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처럼 호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의 친구’(마 11:19)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마 12:24)라고 악평하였습니다. 호평이든 악평이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모두 그릇되었고 편견에 치우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여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와 같은 반열에 두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역사상 위대한 교사, 자선 구제자, 사회 개혁자, 사상가, 순교자 등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메시아 중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고 허망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과 판단에 의한 지식은 백해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가운데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

아 만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십 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습득하는 모든 지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둘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지식이란 누구나 읽고 들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확한 지식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언젠가 택시 기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못 들은 것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기사님도 교회에 다니시겠군요.” 하였습니다 “저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시겠군요?” 하니 “알기야 하지요. 성경도 통독하였고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 알만큼은 다 압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이라고 내가 입을 여니 얼른 그가 “그래도 나는 믿지는 않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① 단지 아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는 않으면서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호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부모 때부터 교회 다니던 습관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은 있으나 어떤 이유로 교회나 기독교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전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③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④ 믿고는 싶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 압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각종 음식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양학자나 요리사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어 위독한 사람이 그 병에 대한 특효약이 있음을 알아도 그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하였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

지 아니하리라”(롬 10:9~11)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6~18)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네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의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信賴)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믿는다”와 “신뢰한다”의 사전적 낱말 뜻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낱말의 의미에 차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믿는 정도와 상태가 한층 더 두텁고 강하며 적극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철저히 기대고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비근한 예로 유명한 줄타기 곡예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보겠습니다. 곡예사가 폭포 위로 매어놓은 줄을 밟고 건너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아슬아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곡예사가 군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무사히 왕래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일제히 “예”라고 함창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는 감동하여 들뜬 목소리로 “당신은 틀림없이 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곡예사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생께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명을 받은 남자가 갑자기 얼굴빛이 하얗게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치더니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곡예사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그 곡예사에게 의지하고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발 디딜만한 넓이만 있으면 그 위에 서 있거나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까마득한 절벽과 절벽 사이에 30센티 폭의 다리가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 다리는 아주 튼튼하여 요지부동하다고 할지라도 그 다리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연달(練達)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맡긴다고 맡은 쉽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못 맡기고 안전부절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연달하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은 모세 같은 훌륭한 모본이 있어도 배우지 아니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를 본받은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단련하였습니다. 그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으려고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항해 중에 악명 높은 광풍 유라굴라로 인하여 파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인, 군인, 죄수, 선원 등 276명이 탄 배가 난파

될 위기에 처하여 모두 자포자기 상태가 된 와중에서 바울이 그들을 안돈시키며 지휘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신앙의 깊이가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맡겼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넷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신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위로써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행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섯 가지만 언급해 보면 이해합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둘째, 찬송 부르기를 즐거워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다섯째,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섯째,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행위와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나뭇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 나루에 도착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리므로 무료해진 학자는 사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공 양반,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철학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요. 플라톤은 인생에 대해 매우 값진 지식을 가르쳐 준 훌륭한 철학자였소. 그럼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시오?” “웬걸,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쫓쫓,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소.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예술의 나라지요.” 학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사공에게 난감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시(詩)에 대하여 좀 아십니까?” “학자님, 전 그런 것은 다 모릅니다.”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가 강어귀에 거의 다다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서 그만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학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강에 빠졌습니다. 사공은 학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어푸어푸 소리 내며 허우적거리는 학자가 다급한 소리로 “난 수영 못해요. 살려주세요.”하니 사공은 “안됐군요. 학자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학자는 사공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음 질문에는 반드시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①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 ②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③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 ④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같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